

순천 선암사 도난문화재 목록

연번	명칭	수량	제작연대	크기 (cm)	비고
1	팔상전삼십상조사도 4폭 (3·5·7조사, 9·11·13조사, 4·6·8조사, 10·12·14조사)	4점	1753년	134.6×222.8, 134.9×234 134.2×155, 134.2×155	
2	팔상전팔상도	8점	1780년	각각 154.1×130.6	
3	향로암신중도	1점	1819년	103×74.8	
	무성암신중도	1점	1820년	118×86.2	
4	지장전지장보살도	1점	1849년	193×217	
5	지장전시왕도 및 사자도(11폭)	11점	1849년	112.7×73.7	
6	대승암칠성도(14폭)	1점	1854년	130.7×104.5	
	염불당독성도	1점	1879년	74.5×52.5	
합 계		28점	8건 28점		

붙임 : 순천 선암사 도난문화재 자료



1. 선암사 팔상전 삼십상 조사도(3-5·7조사) / 1753년제작 / 가로 134.6cm, 세로 222.8cm



2. 선암사 팔상전 삼십상 조사도(9-11·13조사) / 1753년제작 / 가로 134.9cm, 세로 234cm



3. 선암사 팔상전 삼십상 조사도(4·6·8조사) / 1753년제작 / 가로 134.2cm, 세로 155cm



4. 선암사 팔상전 삼십상 조사도(10·12·14조사) / 1753년제작 / 가로 134.2cm, 세로 155cm

□ 도난문화재설명

○ 팔상전 삼십상조사도(4폭) : 총 11폭에 나누어 석가모니불과 33조사를 표현하였다. 1753년에 隱壽, 致閔, 卽 環 등이 그린 것으로 당시 팔상전에 봉안되어 있었으나 현재 4폭이 소재 불명이며, 7폭만 성보박물관에 보관중이다. 『祖堂集』에 근거한 <선암사 33조사도>는 당시 유행하던 明代 畫譜인 『洪氏仙佛奇蹤(이하 '洪')』과 『三才圖會(이하 '三')』를 모본으로 하여 그려졌다. 전체적으로 황색 바탕에 朱·綠·靑의 대비가 두드러지며 옷주름은 주로 묘선을 억제한 대신 농염의 차이로 입체감을 나타내었다. 간략하고 깔끔한 윤곽선 안의 존자별 상호 표현이 두드러지는 수작이다. 1753년에 선암사 팔상전에 봉안하기 위하여 지한 등이 봉안한 탱화로 팔상전에 전래됨.

종별	수량	규격 (cm)	시대	도 난 장 소	도난 일자	소유자	연락처	비 고
비지정	4점	사진캡션 참조	1753년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 선암사	미상	선암사	문화재청 080-290-8000 순천시 문화관광과 061-749-3226 선암사 성보박물관 061-754-6062	

순천 선암사 「팔상전 팔상도」 8점





□ 도난문화재설명

○ 선암사 팔상전팔상도 : 書記에 의하면 '乾隆四十年年庚子四月日'(1780년)에 조성되어 조계산 선암사에 봉안하였다고 한다. 8폭으로 제작되었으며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通度寺 八相圖(1775년)와 도상의 내용이나 구성에서 관련성이 보인다. 그러나 통도사 팔상도에 비해 인물이나 건물 등의 배경이 간략화 되고, 화면을 구획하는 산수의 표현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1780년에 선암사 팔상전에 봉안하기 위하여 쾌윤 등이 봉안한 탱화로 팔상전에 전래 됨.

종별	명칭	수량	규격 (cm)	시대	도 난 장 소	도난 일자	소유자	연락처	비 고
비지정	선암사 팔상전 팔상도	8점	가로154.1 세로130.6	1780년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 선암사	미상	선암사	문화재청 080-290-8000 순천시 문화관광과 061-749-3226 선암사 성보박물관 061-754-6062	

순천 선암사 「향로암 · 무성암 신중도」 2점



향로암 신중도/1819년제작/가로 103cm, 세로74.8cm



무성암 신중도/1854년제작/가로130.7cm,세로140.5cm

□ 도난문화재설명

○ 향로암 신중도 : 이 작품을 그린 道鎰(度鎰/道日)은 1796년 운수암 신중도와 1802년 나한전 신중도에 快琬을 수화사로 하여 동참한다. 1812년에는 금어로 수도암 신중도를 제작하고 嘉慶24年(1819)에는 이 향로암 신중도를 그리며, 이어서 1820년에 無性庵 신중도(118×86.2cm)를 그린다. 그런데 1812년의 수도암 신중도와 향로암 신중도·무성암 신중도 두 작품은 존상 구성과 구도 등이 일치하지만 안료의 명도에 차이를 보인다. 이는 제작당시 안료 수급상황 등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도일은 19세기 선암사 불화 불사에 다수 참여하게 된다. 상단에 단독의 제석천을 중심으로 네보살과 천동·천녀 등 5위가 배치되어 있다. 하단에 위태천도 제석천과 같은 방향으로 합장하고 복덕대신·가루라·호계대신 등이 표현되어 있다. 1819년에 향로암 신중도로 도일스님에 의하여 조성되어 향로암에 전래되어 왔음.

○ 무성암 신중도 : 화기에 의하면 1820년에 무성암에 봉안하기 위해 도일과 천여를 비롯한 4명의 화사에 의하여 조성된 신중도이다. 상단에 단독의 제석천을 중심으로 네 보살과 천동·천녀 등 5위가 배치되어 있다. 하단에 위태천도 제석천과 같은 방향으로 합장하고 복덕대신·가루라·호계대신 등이 표현되어 있다.

1820년에 무성암 신중도로 도일과 천여스를 비롯한 4명의 화사에 의하여 조성되어 무성암에 전래되어 왔음.

종별	명칭	수량	규격 (cm)	시대	도 난 장 소	도난 일자	소유자	연락처	비 고
비지정	선암사 향로암신중도	1점	사진캡션참조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 선암사	미상	선암사	문화재청 080-290-8000 순천시 문화관광과 061-749-3226 선암사 성보박물관 061-754-6032	
	선암사 무성암신중도	1점							



선암사 지장전 지장보살도 / 1849년 제작 / 가로 193cm, 세로 217cm

□ 도난문화재설명

○ 지장전 지장보살도 : 화기에 따르면 1849년, 선암사의 명부전에 봉안하기 위해 井瑤가 증명하고 天如가 益讚, 永雲, 道旬과 함께 그렸음을 알 수 있다. 화면 중앙에는 지장보살이 왼손엔 석장을, 오른손엔 구슬을 쥐고 결가부좌의 자세로 앉아있다. 화면 아래부터 좌우에는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이 있고 상부 왼쪽에는 문수보살, 미륵보살, 금강장보살, 그리고 오른쪽에는 보현보살, 竭羅보살, 제장애보살이 배치되어있다. 좌우 외곽에는 귀왕, 나찰들이 옹호하고 있는데 화면의 여백에 구름 문양으로 경계를 지었다. 화풍은 동시기에 같은 화사에 의해 제작된 대웅전 삼장보살도와 거의 유사하다. 즉, 적·록의 대비가 큰 틀을 이루되 호분을 사용하여 입체감을 나타내려는 흔적이 보이며, 좌우의 인물을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평면적이고 균제 된 구도를 취하였다. 1823년 화재로 지장전이 타고 그 후 1824년에 해봉과 익종스님에 의하여 중창되었다. 이후 불화를 모시지 못하다가 1849년에 지장전 후불도로 天如가 益讚, 永雲, 道旬과 함께 그려서 지장전에 봉안하였음.

종별	명칭	수량	규격 (cm)	시대	도 난 장 소	도난 일자	소유자	연락처	비 고
비지정	선암사 지장전 지장보살도	1점	사진캡션 참조	1849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 선암사	미상	선암사	문화재청 080-290-8000 순천시 문화관광과 061-749-3226 선암사 정보박물관 061-754-6062	



선암사 지장전 지장시왕도



선암사 지장전 지장시왕도



선암사 지장전 사자도

□ 도난문화재설명

○ 선암사 지장전시왕도 및 사자도(11점) : 원래는 12폭으로 제작된 시왕도인데 현재는 1점만 전하고 나머지 작품은 도난을 당하였다. 이 시왕도는 제8평등대왕의 복장물을 통해, 1849년 제작되었고 천여(天如)와

순천 선암사 「대승암칠성도 · 염불당독성도」 2점



대승암 칠성도/1854년제작/가로130.7cm, 세로104.5cm



염불당 독성도/1879년제작/가로74.5cm, 세로52.5cm

□ 도난문화재설명

○ 선암사 대승암 칠성도 : 1854년에 조성된 칠성도 3폭 중 좌측폭으로 중앙과 우측폭은 성보박물관에 보관중에 있다. 상단은 북두칠성과 하단에 나머지 14수, 즉 동방 角亢氐房心尾箕 星君과 북방 斗牛女虛危室壁 星君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으로 대승암칠성도 3폭은 치성광삼존, 칠성여래, 자미대제와 좌우보필성, 삼태성, 육성, 칠원성군, 북두칠성, 28수 등을 화면 구성요소로 함을 알 수 있다. 1854년에 익찬과 도순에 의하여 대승암 칠성각 3폭으로 나누어 봉안되어 전래됨.

○ 선암사 염불당 독성도 : 독성도는 16나한도의 제 1존자이기도 한 나반존자, 혹은 빈도로존자를 독립 신앙화하여 그린 불화이다. 신통력이 뛰어난 부처의 제자로 인도의 천태산에서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나한조사의 상호에 흰 눈썹이 길게 내려와 있는 것도 『아육왕경』에 기록된 빈도로존자의 모습에 기원을 두고 있는 듯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후기에 와서 독성신앙으로까지 발전한다. 정면을 응시하고 당당한 자세로 석장을 짚고 앉아 있는 나반존자를 그린 이 작품은, 배경으로는 암석과 소나무, 구름 등만을 간략히 표현하고 존상의 위엄이 두드러지도록 표현하였다. 묘영과 좌삼이 그렸다. 1879년에 선암사 염불당(현재의 설선당)에 봉안하기 위하여 묘영과 두삼이 그려 전래되었음.

종별	명칭	수량	규격 (cm)	시대	도 난 장 소	도난 일자	소유자	연락처	비 고
비지정	선암사 대승암칠성도	1점	사진캡 선참조	1854년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 선암사	미상	선암사	문화재청 080-290-8000 순천시 문화관광과 061-749-3226 선암사 성보박물관 061-754-6062	
	선암사 염불당독성도	1점		1879년					